

## 선생님, 저희 토론 더 하게 해 주세요

-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협력:

###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토론학교 이야기

김진익

부천교육지원청 장학사

#### 1. 그 어려운 토론을 경기꿈의학교에서 배운다고?

‘토론으로 마음을 모으는 토요학교’, ‘토마토 토론학교’의 원래 이름이다. 이 학교는 학교 안에 없다. 대안 학교도 아니다. 토마토 토론학교는 2017년에 꿈의학교<sup>1)</sup> 중 하나로 개교했다. 개교 당시에는 부천의 한 시민인 정석화 씨가 운영의 주체가 되었다. 정석화 씨는 교육청의 학생 토론 교육 행사에 시민 관정관으로 참여했던 인연으로, 토론 교육에 매료되었다는 시민이었다. 토론 학교는 관내의 청소년 수련 시설을 대관하고 토론 교육 전문가인 교사를 초빙하여 운영하였다. 1년이 지난 2018년 현재에는 참여한 학생들의 요청과 학부모의 든든한 지지에 힘입어 부천의 청소년 기관인 여성청소년센터에서 이어 맡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부천 여성청소년

1) 경기꿈의학교(꿈의학교)의 줄임말이다.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교육청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꿈의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운영 예산도 심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꿈의학교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와 꿈을 가꿀 수 있도록 미리 도전해 보고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학교 밖 학교다. 2018년 현재 경기도에는 천 개의 꿈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센터는 토마토 토론학교 1기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지역 사회 탐구 청소년 동아리의 활동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학생들이 토론을 통해 마을과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토마토 토론학교 학생들은 교실 토론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사는 지역의 문제를 이해하고 개선하는 사회적인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발 더 나가서 초등학생들의 독서 토론을 지도하는 데 참여하고 있다. 지도 교사를 돕는 보조 지도자 활동이 그것이다. 토마토 학교 학생들의 멋진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 토론학교를 다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성장하고 있을까? 이 글에서 토론학교와 학생들,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

## 2. 선생님, 학생, 그리고 시민이 만나 토론학교의 주체가 되다

토마토 토론학교의 운영 주체는 학교나 교사가 아니다. 부천 시민들이 다. 토론 교육의 가치에 공감하고 학생들이 토론을 깊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학부모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학교이다. 물론 학생들의 토론 수업과 교육과정은 지역 사회의 토론 교육 전문가이신 선생님들을 초빙하여 운영했다. 경윤영 선생님, 최수진 선생님, 고지연 선생님 등 세 분의 선생님이 참여해 주셨다.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로서 나도 '학생들에게 토론을 제대로 가르치는 경기꿈의학교가 생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토론 교육과정 구성, 학생 모집, 시설 대관 등 필요한 것을 지원했다. 시민들이 토론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도 경기 교육의 가치를 만들고 교육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몇 달의 준비를 거쳐 경기꿈의학교 공모에 뽑힌 토마토 토론학교, 드디어 학생을 모집하게 되었다. 공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도 모르

게 마음이 벅찼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장을 맡아 운영하시는 시민이 전화를 주셨다. “왜 이럴까요? 참가 신청한 학생이 한 명도 없어요.” 시간이 흘러도 학생 모집이 안 된다고 걱정하는 전화는 계속 이어졌다. 결국 토마토 토론학교의 요청으로 학교 설명회를 해 보자는 대안이 나왔다. 날을 잡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안내하고 설명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설명회 당일,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원 담당자로서 정말 아쉬웠다. ‘이대로 접어야 하나?’, 속이 새까맣게 타는 시간이었다. 무려 1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뒤늦게 알게 되었다며 2명의 학부모만이 찾아왔다. 그래도 부천에서 처음 만드는 ‘토론학교’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목소리를 높여 설명했다.

‘그 어려운 토론을 배우러 학생들이 모이겠어?’라고 생각했던 토마토 토론학교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온라인 접수 등록을 마감하는 날에, 토론을 배우고자 등록한 학생이 30명 정원을 넘어 무려 36명이나 되었다. 토마토 토론학교는 등록한 학생들을 면접하였는데 학생을 선발하는 면접이 아니라 교육과정 편성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 기초 면담이었다. 예상대로 학부모의 권유로 참여한 학생이 많았다.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단면이지만 학생이 면접장까지 찾아온 것도 대단한 도전이라고 격려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여기서 진짜 기적을 만난다. 어떤 중학생이 놀라운 대답을 한 것이다. 자신은 “기억만 하는 사람(memorizer)이 되고 싶지 않다.”고, “창조(inventor)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토론으로 답을 찾아보겠다.”며 참가 동기를 밝힌 것이다. 자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 동기를 가진 학생을 만난 면접관들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더구나 이런 학생이 한둘이 아니었다. 면접이 끝난 직후부터 토론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열정이 동시에 피어났다. 그날 밤부터 토론 교육 과정을 새로 마련하는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날 이후에도 여러 번 열렸다. 이 역시 자발적으로…….

〈토마토 토론학교의 연간 교육과정(2017)〉

순	일시	주요 활동 내용	시간
1	2017. 5. 1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 및 포부 밝히기</li> </ul>	4
2	2017. 5. 20.(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교식 및 꿈의학교 희망 나누기</li> </ul>	4
3	2017. 6. 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 토론 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크라틱 세미나 입문 및 실습</li> <li>- Co-leader 교육</li> <li>- 소크라틱 세미나 스케치</li> </ul> </li> </ul>	4
4	2017. 6. 1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제 유형 구분, 논제 해석</li> <li>• 행사 토론으로 논증 구조 익히기</li> <li>• 토론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 전지 토론</li> </ul> </li> </ul>	4
5	2017. 7. 15.(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 속 인물이 살던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박열〉 감상</li> </ul> </li> </ul>	4
6	2017. 7. 28.(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캠프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론 쓰기 및 토론 개요서 작성</li> <li>- 반론 쓰기 및 교차 조사 질문 작성하기</li> <li>- 최종 발언 실습</li> </ul> </li> </ul>	8
7	2017. 7. 2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캠프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형 쟁점형 디베이트 모형 활용</li> <li>- 판정 실습</li> </ul> </li> </ul>	8
8	2017. 8. 19.(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토 스탠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생각하는 봉사란?</li> </ul> </li> <li>• 토론 꿈의학교 역량 나눔 봉사를 위한 방법 구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탁 토론</li> </ul> </li> <li>• 모둠별 프로젝트 봉사 활동 계획서 작성</li> </ul>	4
9	2017. 9. 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로써의 토론 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툴킷 활용</li> </ul> </li> <li>• 구체적인 활동 구안</li> </ul>	4
10	2017. 9.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루 광장 토론 한마당을 위한 분과별 활동</li> </ul>	4
11	2017. 9. 16.(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 부천 아고라, 학생 정책 토론 한마당 개최</li> </ul>	4
12	2017. 10. 21.(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사회적 기업 시지온 김미균 대표님과의 만남</li> <li>• 흥대 거리 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뎀 미션 수행</li> </ul> </li> </ul>	4
13	2017. 12. 23.(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 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토론 (신호등 토론, 끝장 토론)</li> <li>- 성장 발표회</li> </ul> </li> </ul>	4

### 3.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토론 교육과정 구성과 실천 이야기

토론을 배우겠다고 뛰어들 30명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대체로 조용하게 지내는 편이라고 소개했다. 중학생이 대부분이고 고등학생은 2명이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토론 경험에도 상호 간에 차이가 있었다. 토론 교사들은 학생들의 여러 조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토론 학습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계했다. 먼저 마음을 열고 자신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마음 열기’, 본격적으로 토론의 실재를 학습하는 ‘우리 마음 세우기’, 토론 학습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치적인 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인 ‘다른 마음 지지하기’, 지역 사회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고 실천적인 활동을 선보이는 단계로서 ‘마음 모아 우리의 실천으로’ 등 4단계로 구성했다. 이것은 토마토 토론학교의 성패가 교육과정 구성에 달려 있다는 선생님들의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의무적으로 다녀야 하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들이 선택해서 참여한 학교이기 때문이다.

‘마음 열기’ 단계는 독서 토론의 방법 중 하나인 ‘소크라틱 세미나(Socratic Seminar)<sup>2)</sup>’로 나아갔다. 소크라틱 세미나는 주어진 글을 읽으면서 학생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떠올리고 친구들의 생각이 담긴 답을 경청하고 논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고 그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질문을 시작으로 답하고, 그리고 또다시 질문이 이어지며 꼬리를 무는 대화 방식이 핵심이다. 그리고 학생들 서로가 시선을 마주하고 평등한 관계로 대화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형식을 갖추어 유창하게 발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학생들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2) Victor J. Moeller and Marc V. Moeller, (2015), 《Socratic Seminars in Middle School: Texts and Films That Engage Students in Reflective Thinking and Close Reading》, New York, Routledge.

질문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별로 없다. 학창 시절, 쓸데없는 질문했다며 선생님께 꾸중을 듣거나 학급 친구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일은 비단 필자만의 경험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은 무엇을, 어떻게 질문해야 할까? 소크라틱 세미나는 학생들에게 질문을 찾는 방법을 알려 주고 보다 좋은 질문을 선별하는 안목도 키우도록 지도한다. 소크라틱 세미나에서 학생들에게 권장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
-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것
-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혹은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모든 것
-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소크라틱 세미나는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은 토론 방법이다. 대단히 유창해야 좋은 토론자이고 어느 순간에는 공격적으로 보이는 말하기가 토론이라는 편견을 깨고, 의무적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여 주기 때문이다. 이 토론 방법은 질문과 대답이 계속 이어지면서 자신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고 자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데 그 장점이 있다.

마무리는 소크라틱 세미나 정리 과정이다. 글의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마무리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고가 정리되고 깊이 있게 다듬어지는 절차이다. 이후에는 토론 수업 진행 과정과 자신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글을 쓴다. 이 과정은 학생들이 자신의 토론 참여 전반에 대해 성찰하고 더 나은 토론을 위해 준비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컸다.

‘우리 마음 세우기 단계는 찬반 토론의 구성 요소를 익히고 배우는 과정

이다. 논제에 관해 자신의 주장을 선택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논증의 내용과 방법에 관해 배운다. 또한 논증의 과정을 자기 스스로 점검하고 논제와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부터 주장-반박-재반박의 과정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실습과 토의 진행 등의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주장, 이유, 논거, 특히 논증 요소를 적용하는 능력을 기르고 내면화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토론 캠프 형태의 학습이었다. 찬반 토론에서는 진리를 찾거나,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방법을 찾기 위해 논쟁한다. 찬성과 반대 측 입장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입장에서 논증적 대화를 나눈다. 대화의 내용은 서로의 주장과 이유, 논거에 관해 논증과 논박을 토론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이전에 생각해 보지 못한 것들 사이에 관련성을 찾아보기도 한다. 또한 사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거나 새로운 관점에서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는 등 사실을 인식하는 관점을 바꾸기도 한다. 토론 교사는 토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고의 전환 또는 새로운 관점,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내용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가 발현될 수 있으며 상상력이 발휘되는 순간에도 나타난다고 보았다.

#### 4. 여름 토론 캠프 이야기

토마토 토론학교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이틀 간 토론캠프를 열었다. 토론 캠프 장소를 제공한 학교는 부천교육지원청이 지정한 학생 중심 토론학교였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토론 교육의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고 있는 학교다.

토마토 토론학교는 여름 방학 토론 캠프를 진행하기 위해, 두 달 전부터 선생님들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학생들과 함께 읽을 책도 선정

하였는데 《철학, 과학 기술에 다시 말을 걸다》를 학생 모두가 함께 읽고 토론하는가 하면 저자도 만나면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현주소와 이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 탐구하고 지적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토론 캠프에서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는 찬반 토론의 논증을 익히고 실천 토론 실습과 판정 피드백을 모든 학생이 4회 이상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토론 결과에 관한 판정을 통해 자신의 토론을 회상해 보고 논증 과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의 토론에서 역량이 크게 성장하는 단계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판정관의 피드백과 같은 외적 평가와 자기 스스로 논리를 점검하는 지적 작용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판정관의 판정 및 판정 평은 일종의 학생 개별화 지도 과정이다. 학생들은 논제 분석, 논증의 과정, 쟁점의 파악 여부, 언어적 표현 방식 등에 다양한 관점의 판정 평을 듣는다. 또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토론 논제에 어떻게 접근했는가?' 등에 대해서도 판정이란 절차를 통해 학생들은 더 나은 논증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 것이다. 그 결과 학생은 '어느 입장이 더 우월하게 논증했는가?'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논증을 성찰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다음 토론에서 자신이나 자기가 속한 조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더 많이 쏟았다. 학생들은 매번 판정을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였고 그 다음 토론에서 토론 역량이 보다 개선, 향상되었다. 학생들이 실제로 타인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경청하는 경험, 논리적 증명의 과정으로 진실을 탐구하고 즐기는 경험, 논리를 거꾸며,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자 도전하는 경험이 토론에서 이뤄지며 이러한 경험이 학생의 역량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여름 방학 토론 캠프는 학생들의 성장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토론 교육으로 자신의 성장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갖고, 실력을 키우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다. 토마토 토론학교 학생들 중에는 토론 개요서를 작성한다고 토론캠프 전날 새벽까지 잠을 못 잤다는 학생도 있었다. 새벽까지 개요서를 작성하고, 그 상황에서 하루 8시간 수업을 들으며 강행군한 끝에 몸살이 나는 학생들도 있었다. 게다가 굶은 날씨에 컨디션이 좋지 않은 학생들도 있었지만, 학생들은 토론 수업에 신명이 올라 있었다. 학기 초에 수줍고 소극적이었던 그 학생들은 어느새 사라졌다. 학생들이 기대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미 자신의 선택에서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행사를 마칠 때 읽었던 토론 캠프 참여 소감은 교사들에게 더욱 큰 보람과 감동으로 다가왔다.

“16시간 동안 토론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나니, 토론의 실력은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중1 때는 이런 말을 생각해 낼 수 있었던가 하고 돌아보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경청’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막상 대화를 하다 보니 내 의견 말하기에 급급해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토론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던 느낌은 정말 잊을 수가 없다!”

토마토 학생들은 토론을 배우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즐기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있었다. 이 모습에는 지도하는 선생님의 열정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에너지도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믿는다. 나아가 토마토 토론학교는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교사와 시민, 학부모가 함께 운영하며, 학교 밖 학교가 학교와 적절히 연계성을 갖고 지역교육공동체와 체계를 공유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 5. 사회적 쟁점을 토론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다

지금까지 설명한 단계는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토론을 배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내용이다. 학생들에게 더 가치 있는 배움은 토론 캠프 이후에 생겼다. 더 가치 있는 배움은 바로 다른 마음을 지지하고 마음을 모아 실천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토마토 토론학교 학생들은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꿈의학교를 통해 토론을 새롭게 배웠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사회가 자신들을 도운 것과 같이 자신들이 배운 내용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에 어떻게 나눌까?’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란 테이블 토론 툴킷’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 토론 방법을 익혔고 그 결과로 학생들이 제안한 것이 부천의 청소년 100명과 함께 청소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책 포럼을 열자는 것이었다. 토론자, 사회자, 진행 요원, 현장 취재 및 촬영, 등록 접수 등등의 모든 과정에서 토마토 토론학교 학생들이 고민하며 준비하고 실천으로 활동했다. 부천역 앞 광장에는 마루 광장이 넓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학생들은 이 공간을 ‘아고라’로 이름을 붙이며, 고대 아테네의 ‘아고라’ 광장에서 이루어졌던 민주주의의 현장을 재현하고자 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었던 입시 제도 문제라는 진지한 주제를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함께 토론하는 행사를 개최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를 학생들이 할 수 있다는 것에 지역 사회의 어른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2018년도에도 이 행사가 이어지며 정례화되었다. 이것은 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운 지식과 역량을 지역 사회에서 삶의 문제로, 실천적 행동으로 잇는 가교의 역할을 했다고 본다.

## 2017 부천 아고라 ‘학생 정책 토론 한마당’ 일정표(최종)

- 일시 : 2017.9.16.(토) 10:00-11:30
- 장소 : 부천역 마루광장
- 대상 : 부천 중·고교 학생 참가 희망자 120명

토론회 주제 : <b>변화를 꿈꾸는 대한민국 교육, 학생의 의견을 듣는다</b>			
식전 공연			
인사말 (5분)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방용호		
발제 (10분)	고등학생의 눈으로 본 경기도교육, 부천교육의 현재와 미래 - 김시연 (부명고, 전 고교 학생회장 연합회 회장)		
자정토론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5인 1팀)	고교학생자치회연합회 (5인 1팀)	비고
<b>1ROUND : 외교, 지사고의 일반고 전환, 어떻게 볼 것인가</b>			
입론	5분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입안 토론자 ①	나머지 4명의 팀원이 협의 하여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
질문 답변	5분	모두 대답	
난상토론1 (15분)	<b>(행사 중 질문 접수)</b> ※ 청중이 토론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토론자 답변한다.(객석 마이크 운영: 학생기획단)		
<b>2ROUND : 학생부 중립전령, 적성과 흥미 중심의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인가</b>			
입론	5분	학생 자치회 연합회 입안 토론자 ①	나머지 4명의 팀원이 협의 하여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
질문 답변	5분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질의 토론자 ②	
난상토론2 (15분)	<b>(행사 중 질문 접수)</b> ※ 청중이 토론자에게 직접 질문하고 토론자 답변한다.(객석 마이크 운영: 학생기획단)		
팀별 입장 정리	5분씩 10분 소요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최종발언 토론자 ③	각 팀의 ⑤번 토론자는 대답과 자료 정리를 맡는다.
강평 및 격려 (5분)	부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방용호		
식후 공연			

교육 정책에서 학생들은 지금까지 교육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내용, 방식, 제도 등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을 내는 기회가 제한적이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소외되어 있었다. 이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은 이제 주체가 되어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입시 제도

라는 사회적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듣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토마토 토론 학교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대상 ‘독서토론 프로젝트’ 과정에서 ‘토론을 돕는 멘토’ 활동에도 참여했다. 자신들이 배우고 익힌 토론 역량을 지역 사회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했다.

## 6. 토론학교 토마토,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민주 시민 교육의 지평을 넓히다

2017년부터 시작한 토마토 토론학교는 2018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토론학교가 계속 운영되는 이유는 이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서이다. 토마토 토론학교에서 배움을 찾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 보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좋은 점도 공유했다.”

“다양하게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참신했고, 토론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토마토 토론학교가 운영된 약 6개월 동안 학생들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기회가 생겼다. 그 사이에 학생들이 보인 변화는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교육적 성장의 과정이었다. 첫째는 그저 말을 잘하는 것이 토론이라고 알고 있던 학생들의 생각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학생들은 토론에서 더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점을 깨달았다. 경청은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한다. 논증의 각 요소가 충분히 제시되었는지 평가하며 듣는 것이다. 사례나 근거가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판단하며 듣는 것이다. 논증이 충분한지, 사실인지, 적절한지 계속 생각하며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학생들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배운다. 또한 그 배움은 승패 판정이라는 오락적 요소에 따라 보다 실질적인 적용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둘째는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은 토론의 과정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이 잘되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토론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 이상 정답만을 찾거나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다. 학생들은 이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정답이 무엇이지 찾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근거를 찾기 위해 독서를 한다. 그래서 토론을 배운 학생들은 어느새 능동적인 독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토론 학습이 독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주저하던 학생들이 도전하는 자신을 느끼는 것이다.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고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 토마토 토론학교의 학생들이 새로운 도전에 익숙해진 것은 수업이나 활동 과정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학습의 결과에서 온 것이다.

토마토 토론학교의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주어진 것을 배우는 다소 수동적인 입장에서 이제 지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배움에 임하고 있다. 자신들이 경기꿈의학교 토마토 토론학교에서 배운 토론을 지역 사회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018년도에도 아고라 청소년 정책 토론회는 계속 이어졌다. 물론 여전히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도 및 조언이 없었다면 이를 수 없는 일이며 이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 명의 교사와 한 명의 시민, 그리고 30명의 학생이 만든 기적은 비록 작지만 대단히

도전적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토론을 통해 배움을 즐기는,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여전히 궁금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묻는다.

“선생님, 저희 토론 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학생들이 바라는 것과 같은, 질문과 상상이 넘치는, 즐거운 배움이 있는 교실은 단지 학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와 마을의 선생님과 시민이 만나고 협력한다면 학교와 마을 곳곳은 모두 학생들의 배움의 마당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기대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토론 교육 정책의 첫걸음은 토마토 토론학교를 통해 시작된 것이다.

학생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 사회를 만드는 주인공이다. 민주 시민 사회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움을 주는 방법의 하나로, 학생들이 토론을 충분히 배울 권리와 기회는 어디에서든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적 현실은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국어과 교과와 교육과정과 화법 과목 등에 토론 교육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초중고의 교육적 여건이나 여러 제약으로 인해 학생들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토마토 토론학교에서 성장한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 토론을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이 펼쳐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적어도 부천부터라도 시작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그곳이 학교라면 좋겠지만 마을에서 해도 좋을 것이다.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어깨를 맞대며 선생님, 학부모, 학생 등 교육 주체들이 공감대를 갖고 한 걸음씩 실천하는 토론 교육은 교육 정책 추진 담당자인 내가 더 노력해야 할 과제다.